

문둥이가 전한 복음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 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헛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어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성 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라 [개역, 열왕기하 7:1-10]

엘리사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던 아람이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이 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지 전쟁기록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스라엘이 이런 불행에 당한 원인을 짐작하게 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쳐들어 온 적군의 왕 이름은 벤하닷이라 나와 있고 그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사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싸움을 이끌어 가야 했던 이스라엘 왕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짐작컨대 그 뒤에 나오는 기사와 연결해 보면 요람이라고도 불렸던 여호람 왕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시대에 왜 왕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을까? 아마 왕이 왕의 자격을 상실했거나 왕으로서 대접을 못 받았던 상황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대통령을 세워 놓았지만 도무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이름을 안 불러 주는 경우와 비슷하게 여기서도 왕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왕이었기에 이스라엘에 엄청난 징계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때가 얼마나 혹독한 시대였는지 앞부분에서 조금 더 살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바로 앞 6장 25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주려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팔십 세겔이요 합본래 사분 일 값에 은 다섯 세겔이라’고 말합니다. 적군이 성을 에워싸고 버티면 제일 큰 문제가 양식입니다. 양식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면 양식 값이 폭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귀 머리 하나에 은 팔십 세겔이라 하면 환산해 보지 않으면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런 구절이 나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현재적인 상황으로 환산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세겔이 노동자의 4일 임금이라 합니다. 그러면 80세겔이면 320일 임금이 되는, 거의 일년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이라 봐도 될 것입니다. 일년 동안 번 돈을 다 쥐야 나귀 머리 하나를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묘한 것은 레위기 25:45에 따르면 나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던 고기가 아닙니다. 평소에는 못 먹는 나귀 머리 하나에 일년 연봉을 다 쥐야 하니 엄청나게 비싼 것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짐승들의 몸 중에 머리 부분이 제일 먹을 것이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머리나 돼지머리 누른 걸 바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생선 머리만 보아도 별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별로 없고 평소에 먹지도 못하는 나귀 머리 하나에 일년 연봉이 다 들어가야 한다면 엄청나게 비싼 것입니다. 평소에 배가 부를 때는 음식의 질을 찾지만 형편이 어려워지면 질보다는 양을 찾죠. 그러나 지금은 양도 별로 안 좋은, 평소에 먹지도 못하는 것에 돈은 엄청나게 가져다 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고 있는데 **합분태 사분의 일 갑에 은 다섯 세겔이라**고 합니다. 은 다섯 세겔도 얼핏 계산을 해 보면 한 달 봉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합분태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비둘기의 똥이나 여물지 않은 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분의 일 갑이라면 한 사발정도 되는 것입니다. 여물지도 않은 콩, 껍데기만 있는 그 콩 한 사발에 한 달 봉급을 다 줘야 한다고 합니다. 영양가 없고 제대로 음식 노릇도 하지 못하는 것에 한 달 봉급을 다 넣어야 하는 정도였으니 돈 많은 사람들도 별수 없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굶어 죽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먹을 것이 없으니 술도가에 가서 술찌꺼기를 사와서 아침 대신 그것을 먹고 학교에 가는 아이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옆집 아이가 그랬으니 저도 아마 그랬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기억이 생생한 것은 옆집 아이가 학교에 와서 맛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양가는 없지만 도수가 있다보니 아침부터 술을 먹고 왔다고 야단을 맛았던 겁니다. 그런데 굶주릴 때 먹었던 술찌꺼기보다 더 못한 것이 합분태입니다. 합분태 한 사발에 한 달 월급을 다 넣어야 하니 얼마나 혹독한 굶주림을 겪고 있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 아이를 잡아먹는 일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너희가 이렇게 되면 너희 자녀를 먹으리라는 표현이 가끔 나옵니다만 예전에는 실마 말이 그렇지 진짜 그렇게 되겠느냐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북한에 굶주림이 심해지고 난 후에 거기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간혹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상하고 점잖아 보이고 부성애, 모성애가 어떻다고 이야기 하지만 완전히 굶어서 죽게 되면 변하는 모양입니다. 짐승보다 더 못한 상황으로 가는 듯합니다. 북한에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듣고는 아!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겠구나 생각이 되더군요.

우리 조상들이 ‘쌀독에서 인심이 난다’는 명언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있어야 사람같이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굶주리면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사실 두려운 것은 이보다 훨씬 전인 몇 백년 전에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축복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었다는 신명기 28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우리는 복에 관한 내용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신명기 28:5-6) 그 짧은 복 이야기 다음에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이렇게 징계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리라는 내용을 굉장히 길게 말합니다. 그 속에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네 자녀를 잡아먹는 일이 생길 것이라 예언을 합니다. 신명기에도 그 말씀이 있고 레위기 26장에 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참혹한 일이 있으리라 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이 일이 실제로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예언을 했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역으로 이 시대가 그만큼 악했다는 뜻입니다. 전쟁기록에 왕의 이름도 올리지 않았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왕을 몹시 싫어했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기 싫어하셨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그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때 끔찍한 징계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일에, 죄 짓는 일에 빠진다 하더라도 더욱 경성해야 하는 것은 교회가 같은 길로 간다면, 교회가 무언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기 욕심만 부리고 있으면 끔찍한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오늘 본문 **‘여호와와 말씀들을 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라고 선포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선포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변화인가 하면 우선 단위가 다릅니다. 아까는 합분태 사분의 일 갑이라고 해서 한 사발 정도 되는 것이었지만 여기의 스아는 이런 사발이 서너 개 정도 되는 큰 단위입니다. 예가 될는지 모르지만 예전, 어려운 시절에는 라면도 한 개 두 개 사오더니 요즘엔 상자로 사다 놓고 먹더

라고요. 요즘으로 이야기 하자면 겨우 쌀을 한 되 두 되 사다 먹던 사람이 가마니로 사 먹는 것을 봅니다. 큰 변화입니다.

엘리사의 이야기가 지금은 합분태 한 사발이 없어서 찢찢 매고 있는데 내일 아침이 되면 밀가루를 한 자루씩 사고팔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변화가 적지 않은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변화는 여기에 나오는 가격입니다. 값의 변화가 굉장히 큼니다. 먹어도 영양가도 없는 합분태가 아주 비싼 고운 가루로 변하니 질적 차이를 무시하더라도 양만으로도 가격을 계산하니 최소한 120배~150배로 떨어집니다.

예전에 '금치가 있었죠. 천 원짜리 배추가 만원으로 뛰었던 적이 있습니다. 식당에서도 겨우 한 쪽씩밖에 주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배추 한 단에 십오만원 한다면 난리가 나죠. 그런데 반대로 배추 한 단에 십오만원 하던 것이 내일 천원 한다면 어찌 될까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옆에 있던 장관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서 곡식을 쏟아 붓는다고 해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합니다.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야기가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 장관을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마도 대통령 경호실장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7월에 보면 이 장관이 성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문을 지키는 것은 요즘 말로 아마 수도경비사령관쯤 될 것입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면 대통령 경호실장과 수도경비사령관이 어느 정도의 자리인지 실감이 날 것입니다.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긴 하지만 왕도 이름을 말하지 않는 마당에 경호실장이 선지자 앞에서 권력 자랑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권력과 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이 마당에 선지자를 깔보고 함부로 책망하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합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권력을 믿고 자기 생각대로 큰소리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기는 하지만 그는 그것을 누리지는 못한다는 말씀대로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권력을 믿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만 그렇다고 자기 주관만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도 대단히 위험합니다. 자기 생각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내 뜻,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일치해 가느냐를 살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치위놓고 내 권력이나 내 생각, 내 의지대로 한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장관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문어귀의 문둥이 네 명이 이렇게 죽진 저렇게 죽진 마찬가지니 저리로 한 번 가 보자 해서 가 봤더니 아람군대가 전부 사라져 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아마 환청이 들렸던 모양이죠.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 것입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손 하나 대지 않고 그대로 두고 도망쳐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 버립니다.

이 장면은 마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과정이나 결과와 아주 비슷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문둥이가 전한 복음'이라고 붙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문둥이가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지만 문둥이가 행한 이 일이 위대한 결단이나 놀라운 행동에서 비로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별 것 아닌 일이었는데 결과가 너무나 엄청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둥이들이 아람 군대 쪽으로 가면서 말하기를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을 것이라며 아람 군대 쪽으로 간 것입니다.

이 구절과 에스더가 말한 '죽으면 죽으리다'와 비교해 보면 말은 비슷해 보이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는 내가 내 민족을 생각해서 목숨을 걸겠다는 것으로 살려면 얼마든지 살 수도 있고 저 어려운 문제를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싶으면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일을 하겠다는 것이고 여기 문둥이들은 어차피 여기나 저기나 죽기는 마찬가지니까 저리로 가 보자 해서 간 것으로 신앙적인 위대한 결단이 아닙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 그리로 가는 길이 있으니 그리로 가 보자 해서 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갔더니 결과는 문둥이들이 평생에 본 적도 없는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먹을 것들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열심히 먹고 닥치는 대로 건져서 감추기 시작합니다. 문둥이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죽을 각오를 하고 갔던 곳에서 실컷 먹고 평생에 만져본 적도 구경도 한 적 없는 금과 은과 옷들이 있어서 즐거워하며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도 못했던 복이 이들에게 들어온 것이죠. 이 장면이 우리가 멋모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누리고 있는 기쁨이자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기쁨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처음 나올 때 무슨 행재를 하려고 나오셨습니까? 사연을 하나하나 들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다녀서 나온 분들도 있는 반면에 가기는 싫은데 아버지가 장로고 목사라서 어쩔 수 없이 다닌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내나 남편 등살에 끌리다시피 다닌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연은 각각이지만 그렇게 나온 교회 안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행복이 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허름한 건물 속에 우리 평생에 다 누릴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셔야 합니다. 문둥이 입장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죽으러 갔습니다. 평생에 언제 한 번 금, 은, 좋은 외투를 입어 본 적이나 있었겠어요? 또 감추긴 왜 감췄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가 어떤 이유로 교회에 왔든지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우리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날 문둥이처럼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밤낮으로 흐르게 될 겁니다. 놀라운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한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젊은이가 일본인을 구하기 위해서 철도에서 죽은 사건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 나라 젊은이도 아니고 일본 사람 보기를 원수같이 보는 한국의 젊은이가 어떻게 일본 사람을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버렸을까 하며 매우 놀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잠시였긴 하지만 일본 사람들의 가슴에 큰 충격을 주었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몸을 던지셨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나요? 이것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문둥이가 금과 은과 옷을 다 숨기고 그 동안 먹지 못한 것 한꺼번에 실컷 먹은 그 기쁨과 비교해 보세요. 큰 기대하지 않고 나왔을지라도 그 속에 참으로 놀라운 복이 있는 곳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 복은 아직 작은 것입니다.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곳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감격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문둥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좋을 것이라고 상상해도 그것은 문둥이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저곳에 가면 혹시라도 먹을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둥이 생각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 끌려왔던 부모님 손에 끌려 와서 주리를 틀며 앉아 있던 간에 이곳을 찾은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는 것이 행재도 보통 행재가 아닙니다. 엄청난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확신하고 이 땅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문둥이들이 성 안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들 스스로 그 기쁨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전도해야 한다! 교회에서 체면이라도 세우려면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어서 이 기쁨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진주장사가 정말 예쁜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문둥이가 금덩이, 은덩이를 발견하고 숨긴 것이 잘못이지요? 그것이 잘못이나 아니냐를 떠나서 그렇게 숨기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문둥이가 아무리 좋은 옷을 감추어 둔들 무엇 할까?'란 생각에 옷을 입었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성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거지같이 떠돌며 살 형편인데 말이지요. 그럼에도 당장은 평생에 보지도 만져보지도 못했던 것을 숨기고 있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을지 생각해 보

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문둥이들이 성에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은 그야말로 복음이요, 기쁨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 소식을 전하기 전에 자기들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래야 합니다. 이들이 그동안 얼마나 냉대를 당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전쟁 중에 적군이 사방에서 둘러치고 있는데 이들이 왜 성문어귀에 있습니까? 이들은 성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문둥이라고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바깥은 적군이 둘러싸고 있고 성문엔 들어가지도 못하니 그동안 얼마나 냉대를 받으며 살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람 군대의 진에서 이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자기들이 구박받으며 쫓겨나온 것을 잊어버리고 이 소식을 가서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큰 기쁨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이웃이나 형제에게 그렇게 짜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을 때는 짜증이나 성질이 쉽게 누그러집니다. 스트레스도 적게 받습니다. 이 문둥이들이 얼마나 기뻐는지 그 동안의 냉대나 구박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조금 늦기는 늦었지만 이 소식을 전해야 한다고 해서 성문으로 갔습니다. 이런 즐거움, 이런 기쁨을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랑할 것이 없다면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할 것이 정 없으면 교회 가니 점심 주더라는 자랑이라도 하십시오. 얼마나 맛있는지 아느냐고 이런 자랑이라도 하십시오. 그러나 진짜 사랑은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고 이것을 누리면서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을 ‘와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해도 ‘와보라!’고만 했습니다. 전도 중에 제일 좋은 것이 한번 와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서보니 별 것 없더라고 한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와서보니 정말 다르다는 감탄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별 것 없더라는 말이 나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이 놀라운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겨우 예배에 한 번씩 와서는 힘만 들고 고생만 합니다. 이왕 발 디딘 것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고 매어 달리시면 노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감격이 있는 곳이 이 곳입니다. 이 기쁨 때문에 여차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와보라는 제자들의 표현을 바울은 한 술 더 떠서 바울은 ‘나를 보라!’고 했습니다. 와보라고 하기 전에 자기를 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 주변이나 책이나 어디서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바울의 말은 놀랍고도 충격적인 말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나를 보라고 합니다. 우리 속에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매일 얼굴을 찡그리고 세상 근심 다 짊어진 듯한 얼굴로 사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야 어떻게 나를 보라고 하겠습니까?

이 문둥이들은 본 것을 그대로 전하기만 했습니다. 말을 꾸미려 하거나 감하고 더하거나 미사여구를 동원하지 않고 본 사실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신학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전도엔 약합니다. 무조건 얹혀놓고 설명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어제 처음 교회 온 사람이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된 줄 아느냐?”고 이야기하면 전도하기가 더 쉽습니다. 많이 알고 능력이 있어야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보고 느낀 대로 전하는 이것이 오히려 더 쉬운 방법이더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난 후에 누리는 감격이 필요합니다. 없으면 체험하려 노력하고 애쓰셔야 합니다. 그러면 노력과는 비교도 안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배추 한 단에 십오만원이 그 이튿날 천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죽어가던 사람이 다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일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한 사람이 엘리사이니 엘리사 때문일까요? 문둥이 때문인가요? 문둥이는 본 사실을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아무리 읽어도 누구 때문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들에게 이 무서운 징계가 일어난 것은 그들의 죄와 왕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

게 징계를 당하는 가운데 이 징계를 해제하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은 엘리사도 문둥이도 아닌 아무 조건도 없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징계를 풀어버리신 하나님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역사했건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발로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도 우리 입으로 고백을 하고, 교회를 섬기느라 고생도 했으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랑을 좀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노력은 문둥이가 가서 보고 쫓아가서 소식 전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걱정하셨고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 이런 저런 방법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 많은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기까지, 지구를 돌고,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렸는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너무나 큰 것임을 안다면 감히 '내가 내 발로 교회 왔고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고 내 힘으로 돈 벌어서 헌금하며 섬겼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문둥이가 보고 성문까지 쫓아간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썼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문둥이의 그 작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현실화시켰다는 점에서 문둥이가 칭찬받을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할 뿐이고 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그 소식을 듣고 뛰어간 것밖에 없습니다. 가서 한 짐씩 지고 왔더니 갑자기 식구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누구 덕입니까? 내 발로 갔으니 내 덕이라고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깨끗이 사라지게 만든 것에 비하면 그 소문을 듣고 양식 얻으려고 뛰어간 것은 대단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도성이었던 사마리아에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천대받고 버림받았던 문둥이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버림받고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위대한 결단을 해서 전해진 경우보다 이름 없는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오늘 이곳까지 복음이 전해져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권력의 힘을 등에 업고 선교를 하러 가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군대가 가는 곳에 선교사가 따라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아주 심각한 후유증을 남게 됩니다. 한국의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큰 밑천 중 하나가 한국 선교사들이 군인들의 힘을 믿고 나간 경우가 아작까지는 없었다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용하게 작용합니다. 군의 상급자가 교회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협박해서 전도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권력이나 신분을 이용해서 억지로 끌고 간 것은 나중에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문둥이들을 통해서 전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는 그런 힘없는 사람들의 헌신과 사랑으로도 가능한 것입니다. 힘으로 끌어와서 억지로 앉혀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위대한 결단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보다는 소리없이, 힘없이 밑바닥에 처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나요? 바울도 바나바도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유심히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도록 사고 친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할 때 어떤 헬라파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자기 고향 사람들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사고요 위법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책망을 받기에 알맞은데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된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섰으니 지도할 만한 사람을 보내 달라 해서 가게 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사고뭉치들이 가서 교회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복음에 대해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모였고 그곳에 지도하려고 바나바가 갔고 바나바가 가서 교회가 성장을 계속하다보니 또 손이 필요했고 그래서 적절한 사람을 찾다보니 바울이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름 없고 능력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의 헌신과 열정을 통해서 자라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능력이나 젊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나이가 들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싶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길 소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무일푼이라도 “제게는 능력이 전혀 없지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진정으로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능력이 있어도 그것이 무슨 큰 능력이겠습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문디’라는 말을 나쁜 말로 여기지 않습니다.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아이구, 이 문디야!” 합니다. 경상도 사람들에게겐 아주 친근한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능력 있어도 다 ‘문디’입니다. 하나님, 문디이가 가서 놀라운 능력을 전했대요. 나도 그들 못지않게 능력은 없지만 나를 사용하셔서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게 해 주십사 하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쁨이 이웃들에게 증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살아 있는 동안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먼 훗날 비교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